

양돈업계에 널려 있는 거품을 빼자 인력관리 측면에서 본 양돈장의 거품



이 재 춘

(한국양돈컨설팅 그룹, 한별 피그 클리닉)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IMF 체제이다 보니 양돈장마다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료비와 약품비이며 각종 기자재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돈가가 유지되어야 큰 폭으로 상승한 생산비를 제하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농장마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또한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사자인 농장에서 더욱 절실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농장에서 직원을 여유 있게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 약간 일손이 모자란 듯 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양돈장에서는 요즘 많이 거론되는 정리해고의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대신에 기존의 시설과 인력구성을 재검토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1. 사육규모별 직원 고용 현황

농장의 직원 수는 대부분 사육규모와 돈사시설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다음의 <표1>은 농장주는 관리에 임하지 않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농장으로써 그 중 7개의 농장을 대상으로 필자가 조사한 사항들이다.

농장 명은 익명으로 하였으며 직원 수는 농장주 및 가족노동력을 제외한 고용 직원의 정원을, 급여 총액은 '97년도 월 평균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

였다.

〈표2〉는 전업규모 농장으로 써 자가 노동을 함께 하는 농장의 인력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의 자동화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 수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1〉에서 1인당 관리모돈 수가 가장 많은 농장은 D 농장 (80두) 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농장은 A농장 (43.5두) 인데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A농장은 D농장에 비해 모돈 두당 10,267원 씩 매월 인건비로 추가지급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매월 약 36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두 농장의 수익성과 반드시 정비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A농장은 시설비 투자를 줄이는 대신 여유 인력의 확보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생산성을 높여 인건비의 과다 지출 부분을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표2〉에서와 같은 전업 규모의 농장에도 해당이 된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규모의 전업 농장들은 최근 들어 대부분 사료 또는 제분작업에 대한 자동화가 어느정도 수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농장들에서 그동안 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표1〉 관리직원 고용 현황 (농장주는 관리 안 하는 농장)

농장	사육규모	시설투자	직원수	급여총액	1인당관리모돈수	모돈당 월급여지출
A	350두	하	8	9,500,000	43.8두	27,142
B	500두	중	8	10,160,000	62.5두	20,320
C	750두	하	16	17,050,000	46.9두	22,733
D	800두	상	10	13,500,000	80.0두	16,875
E	600두	중	11	13,700,000	54.5두	22,833
F	400두	중	6	7,500,000	66.7두	18,750
G	250두	중	4	4,800,000	50.0두	19,200

* 시설투자 기준(사료급여와 제분작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완전 자동화, 중 = 사료 급여, 제분작업중 일부만 자동화, 하 = 전체 재래식.

〈표 2〉 관리직원 고용 현황 (농장주가 함께 관리하는 농장)

농장	사육규모	시설투자	직원(자가)	급여총액	1인당관리모돈수	모돈당 월급여지출
H	100두	중	1 (2)	1,000,000	33.3두	10,000
I	150두	중	2 (1)	3,100,000	50.0두	20,667
J	160두	중	* (3.5)	0	45.7두	0
K	220두	상	2 (*)	2,200,000	110.0두	10,000
L	170두	중	2 (1)	3,000,000	56.7두	17,647
M	130두	상	1 (1.5)	800,000	52.0두	6,154
N	150두	중	2 (1)	2,400,000	50.0두	16,000
O	240두	중	3 (1.5)	3,800,000	53.3두	15,833

- * 1인당 관리 모돈수는 자가 노동력을 포함한 것임.
- * 모돈당 월 급여 지출은 자가 노동 인건비는 제외한 것임.
- * 여성 인력 1인은 관례대로 0.5인 으로 하였음.(이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를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자가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장이 1인당 관리모돈 수가 50여두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즉 관리인 1인당 최소 모돈 80두 이상 규모를 담당할 수 있다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인력 투입면에서 효율이 높아져 결국 이윤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때 시설

투자비가 늘어나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에 나타낸 내용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적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전업 양돈장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양돈장의 인력관리도 경영의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된다. 즉 시설을 자동화 하여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 하고자 하는 농장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와는 반대로 시설투자의 여건이 되지 않는 대신 인건비를 다소 높게 부담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불충분 하므로써 대다수의 농장에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

1) 주간관리의 적극적인 활용

요즘 웬만한 규모의 농장에서 주간관리를 하지 않는 농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주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돼지의 주간단위 흐름에 따라 주간 단위 배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이 주간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배치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그 효과를 크게 보지



양돈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농장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시설(사료급여, 제분작업)이 안되어 있다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관리형식만 주간관리이고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은 절감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잘 설계된 배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관리인 1인이 한가지 작업을 하더라도 보다 많은 작업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 주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농장이든 또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 농장이든 사육규모에 맞는 주간 배치 시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기본적인 시설 투자는 필수적이다.

양돈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는 농장의 경우 기본적인 자동화 시설(사료급여, 제분작업)이 안되어

있다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1인당 모돈 80두 이상 관리를 목표로 삼아야 될 시기에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절반 수준인 약 40두 정도 밖에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것이 뻔한 사실이다.

또한 요즘은 돈사내 환경 조절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작업동선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시설에서 약간씩 개조를 해서 돈사를 늘린 경우를 많은 농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일상의 관리나 돼지의 이동시 쓸데 없이 소모하게 되는 시

간이 매우 많게 된다. 심한 경우 실제 관리하는 시간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푸념하는 농장도 있다.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시설을 전면 개보수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돼지의 이동이 수월해야 할 것
- 돼지의 상태 관찰이 용이 할 것
- 사료 급이 관리가 용이 할 것
- 시설의 개보수가 용이 할 것
-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구 및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비치한다.

4)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에 용역을 고려한다.

관리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히 전업규모의 농장은 인력을 빠듯하게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모든 것을 농장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전업 규모의 농장에서는 관리인을 여유있게 고용할 상황이 안되므로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어느 정

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 자칫 과다한 작업량에 지쳐 필수적인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 관리의 부담을 더는 이점 뿐만 아니라 숙련된 외부 전문가가 일 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농장의 관리상 문제되는 부분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영의 융통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시설 개보수와 관계되는 각종 공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많은 농장에서 의외로 간단한 공사가 아닌데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 때 돼지에 대한 관리가 자연 소홀하게 되므로 후에 많은 손실을 보게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짬을 내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 외부에 공사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장본연의 업무는 돼지관리이지 공사가 아님을 명심하자.

또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전산 기록 관리와 백신 접종을 들 수 있다. 전산기록의 중요성이 높아져 요즘은 농장에 PC를 구입해 놓고 기록하는 농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간에 쫓기거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미숙하여 대부

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간적, 비용적, 또는 기대효과로 보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초적인 기록만을 유지하여 외부에 의뢰할 경우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정확히 지속적으로 전산 자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업 규모의 농장에서 가끔씩 백신접종을 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관리에 쫓기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누락이 빈번하거나 접종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돈군의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위험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전문 수의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백신접종 뿐만 아니라 농장의 제반 질병 컨트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현실로 보면 다른 3D업종과 마찬가지로 양돈장에 유능한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농장의 인력관리는 고용된 직원의 관리 능력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타 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직원의 고용 및 인력 조달을 검토해야 한다. **養豚**